

2020년 12월 국내외 위성 관련 산업 동향

< 목 차 >

I. 위성 관련 소식

1. 기상청, 미국과 손잡고 기후변화 감시 역량 강화

(원문) <https://zdnet.co.kr/view/?no=20201203103455>

2. 군 초소형 정찰위성 고흥서 고체발사체로 쏜다

(원문) <https://www.asiae.co.kr/article/2020121508235230010>

3. "1cm 파편도 위성 파괴"…수천만개 '우주 잔해'가 지구 뒤덮었다

(원문) https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12/16/2020121602160.html

4. 천리안 위성 3호 2027년 발사… 빠른 통신으로 재난대응 강화

(원문) https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12/29/2020122901190.html

II. 위성 관련 보도자료

1. 한국형 달궤도선 심우주지상국, 순조롭게 준비 중

II. 보도자료

1 한국형 달궤도선 심우주지상국, 순조롭게 준비 중

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, '20.12.10.

□ 국내 최대 35미터급 심우주지상국 안테나 설치 완료



< 유사한 타 안테나 반사판 상량식 사진 >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최기영, 이하 ‘과기정통부’)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(원장 임철호, 이하 ‘항우연’)은 한국형 달 궤도선(KPLO, Korean Pathfinder Lunar Orbit)의 심우주 통신을 담당하기 위한 심우주지상국이 '22.3월 완공을 목표로 정상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
- 심우주지상국의 안테나 시스템 구축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는 12월 11일에 경기도 여주시 여주위성센터에서 국내 최대 35미터급 심우주 안테나 반사판을 설치*하는 상량식을 개최했음
- * 중량 100톤, 직경 35미터의 반사판을 750톤급 대형 크레인으로 안테나 기초대에 장착
- 이 자리에 참석한 과기정통부와 항우연(달 궤도선 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)은 심우주 안테나 시스템 구축 경과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음

- 향후 심우주지상국은 약 384,400km 거리의 달에서 운영될 한국형 달 궤도선과 통신하며, 달 궤도선의 실시간 상태를 확인하고, 달 궤도 진입 및 임무고도 유지를 위한 동작을 제어하며, 달 궤도선이 관측한 데이터를 수신하는 등 우주탐사 임무 수행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
- 한편, 국내 최초로 달 궤도선 개발을 추진 중인 「달탐사사업」은 조정된 사업계획*에 따라 설계를 마치고 총 조립에 정상 착수하는 등 '22년 8월 초 발사를 목표로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

* (사업기간/예산) 2016.1월 ~ 2022.7월 / 現 2,255억원
(목표중량/전이궤도) 678kg / BLT(Ballistic Lunar Transfer) 궤도